

민주-국민 국비 홍보전 대조 북치고 장구치고 VS 정중동

내년 광주·전남 국비 사상 최대 규모

내년 광주·전남 국비 확보가 더욱 높아진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행보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친 반면, 민주당은 내심 불편한 기색과 함께 거리 현수막 홍보전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지난 11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예산 보고대회를 갖고 "이번 예산 국회는 전국적으로는 다량제 지역적으로는 양당에서는 월등하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최경환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과 정인화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 원내대표 박 전 대표 박주선 부의장 주 전 원내대표 정병완·황주홍·손금주·윤영일 국회의원, 이은방 시의회 의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국민의당의 갈 길은 예산의 길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고 앞으로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며 "특히,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28석 중 23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3년은 우리랑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전 원내대표도 "원내 3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인식하고 균형과 견제를 기본으로 하는 3당제가 왜 중요한지 일깨워준 계기였다"고 밝혔고,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의원도 "다당제 아래 3당의 역할을 열심히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내년 국비 예산확보와 관련해 '북치고 장구치는' 국민의당을 지켜보는 민주당측은 내심 불편한 심기가 역력하게 보인다.

이번 예산확보가 '집권 여당의 힘'이라고 보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측은 '세과시'를 하면서 국민의당 처럼 기자회견 하기는 좀 애매한 측면도 있다.

이게호 의원이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이자, "모양새가 좀..." 민주당 한 인사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소리다.

"정중동", 민주당은 대신 거리 현수막 홍보전으로 가기로 했다.

"이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문재인 정부가 시작합니다", '차떼기' 문제인 정부가 시작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등등 현수막을 광주전남지역에 내걸기로 했다.

10억원 확보 역시 민주당, 광주전남은 민주당 심장입니다"는 현수막도 현안 사업확정 소식과 함께 곳곳에 걸리고 있다.

민주당은 1회성 기자회견 보다는 현수막이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양측의 이같은 미묘한 신경전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예산확보가 집권당인 민주당과 제3당인 국민의당 모두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결과다"면서 "하지만 실제 내막에는 다른 측면도 있는 만큼 이전 인수 해석은 유권자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광주시와 전남도 국비 예산은 광주가 1조9743억원, 전남이 6조16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주춘성 기자

"공항 이전 고민 필요"

윤장현 광주시장 공개적 주문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문제에 대해 동시에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큰 그림'과 저가항공사(LCC)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윤 시장은 12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미래로 가는데 있어서 광주·전남의 경계를 뛰어 넘어야 할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대(對) 중국 관세, 산업지역 등에 있어서 교통 건설국에서 고민해줘야 될 것이 광주공항 이전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군공항 다 가면 그때 (민간공항) 주겠다'는 것은 미래 비전이 없는 논리다. 지금 당장 어느 시기를 못보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을 가지고 지연스럽게 군공항도 가면서 민간공항 통해 무안공항을 활성화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 "대구공항은 15개 국제노선이 있지만 무안공항은 주차장에 잠깐만 무성하고 일반만 가더라도 비행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하루를 소비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추공항으로 활성화시켜 놓는 일이 앞으로 친환경차산업, 에너지산업 등 모든 일들에 절대적으로 경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ITX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무안공항까지 15분 거리"라며 "세계로 향한 창이 열린다고 생각되고 기존의 갇혀진 생각에만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전략적인 대안들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래야만 군공항 이전도 탄력을 받고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가항공사에 대한 관심도 피력했다.

윤 시장은 "그동안 중국 남방항공이나 일본 기타큐슈 등에서 리인(전세기)을 어떻게든 불어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에어부산, 에어제주 등과 같이 그런 가능성을 두고 판단을 해보아야 한다"며 "알뜰항공(저가항공)이 동남아, 일본 등에 10여 개 정도의 노선을 갖고 있다면 지역이 굉장히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부에서 오더라도 인천공항까지 와가지고 다시 광주까지 4~5시간이 걸리는 것은 대기업이나 해외기업 유치하는데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고 수도권 전철이 연결된 대전까지는 수도권으로 치고 그 이하로는 내려오지도 않는다"며 "미래 천년을 본다면 큰 그림을 그려 광주민의 시각을 뛰어넘는 미래비전을 위한 거대 담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동구,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

광주 동구가 내년 2월 말까지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2017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기록과 관계없이 실제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청, 각 동, 수행기관과 연계해 보호대책을 수립했다.

구와 수행기관(조선대학교 노인복지센터)에서는 혹한기 기상특보 발령 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해 요보호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일일이 확인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난방용품, 생필품, 보일러 수리 등을 지원한다.

서구, 설해대비 하수 빗물받이 청소 실시

광주 서구가 설해대비를 위하여 오는 15일까지 주요간선도로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 빗물받이 일제점검 및 청소를 실시한다.

빗물받이는 우기 때 도로와 주택 등의 빗물을 모아 하수관거로 보내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하수도시설물이다.

하지만 도심지의 각종 쓰레기 유입으로 인해 배수구 내부가 막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

쓰레기로 막혀있는 빗물받이는 겨울철 비나 눈이 올 경우 도로변 물고임으로 인해 빙판길 교통사고 유발 등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서구는 운전대로, 상무대로, 대남대로 등 주요간선도로 구간 900여개의 빗물받이에 대하여 점검과 청소를 병행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양림동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열린다

12월 광주 남구에 따르면 양림동주민자치위원회와 평권마을협동조합은 양림동을 찾는 방문객에게 불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를 마련했다.

이 축제는 오는 15일 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진행된다.

주무대인 평권마을 일대 골목길에는 대형 나무 트리를 비롯해 주변 가로수를 활용해 만든 트리 20여개 정도가 설치돼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제공하며, 인근 상가와 주민들도 크리스마스 작은 트리를 조성에 방문객들과 축제에 함께 즐길 예정이다. 2일과 25일 양일간에는 양림오거리 앞 무대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송과 버스킹 공연 등 각종 공연이 펼쳐진다.

북구, 저소득 주민위해 자활사업 활성화 나섰다

광주 북구가 저소득 주민들이 직접 만든 각종 생선품을 전시·판매 및 홍보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자활사업 활성화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북구는 사회복지기금 자활적립금 및 행정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지난 2월 매입한 우산동 소재 구 북광주등기소 건물(북구 면안로 77)을 리모델링해 '자활생선품 공동판매장'을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1월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함께 지역자활센터의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 2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자활생선품 공동판매장'은 구 등기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상 1·2층, 지하 1층 연면적 668㎡ 규모로 조성하며, 1층에는 자활근로사업단 매장, 생선품 판매장을 2층에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실 및 교육장을, 지하 1층은 물품창고를 설치한다.

광산구 복지정책 "상복 터졌네"

광주 광산구가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에서 연말이 수상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부문'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분야'에서 각각 대상을 거머쥐었다. 광산구는 이와 함께 '20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12층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시상식에는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복지담당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광산구가 대상을 차지한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부문'은 최고의 복지라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방침 아래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처음 신설한 평가 항목이다.

임형택 기자

광주시-보해양조 청년부채 해결 협업



윤장현 광주시장과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가 12일 광주 동구 광산동 청년드림은행에서 개소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했다.

청년드림은행 개소식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시는 12일 광주 동구 광산동 청년드림은행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보해양조가 청년 부채 동 청년드림은행에서 윤장현 광주

시장과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드림은행 개소식을 가졌다.

청년드림은행은 광주시와 보해양조가 협업해 설립했다.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부채문제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하고 구제방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장현 시장은 청년 부채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드림은행 공간을 지원해준 보해양조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보해양조 이민규 마케팅본부장은 "청년드림은행은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아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다"며 "지역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해남 · 나주 · 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기 장 대 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면허신청
■ 기업 진단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석면 해체공사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무대리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